

MDI, 공급-수요 “서로 딴소리”

공급물량 확보 못해 비상 ... 예상밖의 수요증가분 감당 못해

2004년 초부터 시작된 MDI(Methylene di-para Phenylene Diisocyanate) 공급부족이 우려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BASF가 4월부터 6월까지 장기간의 정기보수 이후 7월에는 파업까지 겹쳐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해마다 조금씩 줄던 합성피혁용 MDI 수요가 2004년 들어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시장에서는 공급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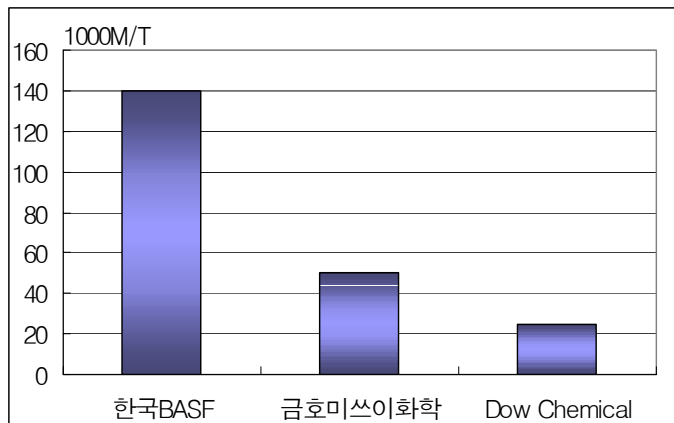
한국BASF는 8월 중순 이후 공장가동률 100%를 유지하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내수에 치중하는 금호미쓰이화학에 비해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상태이다.

일부 MDI 수요기업이나 Dealer들은 “가격과 수요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MDI 가격이 끝을 모르고 뛰는 상황에서 공급물량마저 구하기가 힘들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MDI 생산기업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정 트러블 등 생산 차질은 없다”고 말하고 “MDI 가격이 전망치를 훨씬 웃돌고 있어 좋은 가격을 놓치는 것이 아쉽지만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격한 주문통제 정책을 통해 기존 수요기업들에게만 공급하고 있어 제한적인 공급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10월에는 금호미쓰이화학의 MDI 정기보수도 예정돼 있어 2004년 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급타이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MDI 종합 생산능력



한편, 금호미쓰이화학이 2005년 완공을 목표로 MDI 1만톤 플랜트를 증설하고 있지만 아시아 전체에서 일고 있는 공급부족 바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9/14>